

일부 지역 노인요양기관 종사자의 구강건강 인식정도와 구강건강관리 제공 실태 조사

박정란 · 홍민희 · 최유리¹

백석대학교 치위생학과 · ¹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The oral health awareness and oral health care provided by workers in long-term elderly care facilities

Jeong-Ran Park · Min-Hee Hong · Yu-Ri Choi¹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Baekseok University · ¹Department and Research Institute of Dental Biomaterials and Bio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Corresponding Author: Yu-Ri Choi, Department and Research Institute of Dental Biomaterials and Bio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Yonsei-ro(St) 50, Seodaemun-gu, Seoul 120-729, Korea, Tel : +82-2-2228-3084, Fax : +82-2-364-9961, E-mail : cyr0032@nave.com
Received: 24 September 2014; Revised: 27 March 2015; Accepted: 6 April 2015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oral health awareness and oral health care provided by workers in the long-term elderly care facilitie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213 workers in long-term elderly care facilitie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oral health awareness, oral health behavior,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care professionals, oral health care, oral health care improvement, and denture care. Except the incomplete answers, 200 data were analyzed by the statistical software of SPSS WIN 18.0.

Results: Highly educated people tended to have higher oral health awareness. The workers in the facility maintained the oral health care but they suggested that dental professionals are needed.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suggest the oral health care management by dental professionals.

Key Words: long-term care facility, oral health awareness, oral health management, worker in the long-term care

색인: 노인요양기관, 노인요양기관 종사자, 구강건강인식, 구강건강관리

서론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64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100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인구 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

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평균수명 81.44세에 비해¹⁾ 건강수명은 77.00세로 약 10.46년 정도를 질병을 앓음으로서 살아가는 현실에 놓여 있다²⁾.

2014년 건강보험 조사에서 고령자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 중 3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의 15%(약 79만명)는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하고 더불어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도 12-13만명 정도가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³⁾. 또한 핵가족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등이 증가 되면서 노인들의 부양 문제 또한 대두됨에 따라 노인들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여 고령화로 인한 노인들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 부담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고 국가적으로 그 책무를 다하고자 제도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기관의 확대로 인해 노인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수요의 확대와 더불어 노인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숫자 또한 매우 괄목할 만한 확대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시설 종사자들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교육경험과 노인구강건강에 대한 관심 정도가 요양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⁴⁾, 구강건강관리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재원 노인에 대한 잇솔질 시행 및 의치세정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요양원 종사자가 인식하는 노인구강건강관리의 문제점은 구강건강관리 지식의 부족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⁵⁾. 또한 노인요양원 종사자가 구강위생에 관한 인지도가 낮고 구강관리가 소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명확한 지침 없이 재원노인에 대한 구강위생관리를 시행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⁶⁾. 이에 노인요양기관에 입소해 있는 노인들의 효율적인 구강위생관리를 위해서는 치과 전문인력(치과의사, 치과위생사)의 전문적인 구강건강관리 교육 및 구강건강관리가 매우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노인요양기관에서 노인들과 생활하고 있는 노인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구강건강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노인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구강건강 인식 정도와 요양보호대상자들에 대한 구강건강관리 제공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노인요양기관에 입소해 있는 노인들의 구강건강 증진과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선정된 서울, 경기 지역의 8군데 요양기관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 후 설문 참여에 동의한 요양기관 종사자 213명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응답자가 설문지에 응답사항을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미흡한 13부를 제외한 200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도구는 일반적인 특성 문항(성별, 연령, 결혼 상태, 교육수준, 직업, 주당 근무시간, 경력, 하루 돌보는 요양보호자 수), 구강건강인식 6문항(구강보건의 중요성, 구강건강에 대한 상식,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의 관련성, 구강건강의 사회활동 영향력, 구강건강 중요 요인, 구강건강문제), 구강건강행동 2문항(2년 치과방문 횟수, 하루 칫솔질 횟수), 구강보건지식 필요성, 필요 구강전문인력, 구강위생치치 정도, 구강건강관리 문제점과 개선점, 의치관리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연구의 도구는 연구자가 박⁵⁾의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3. 분석 방법

통계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ocl Science) Ver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특성, 구강관리 실태와 요구도(필요 구강보건지식 내용, 필요 구강전문인력, 구강위생 치치시행 정도, 구강건강관리 문제점과 개선점)는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요양기관 종사자의 교육수준과 구강건강행동에 따른 구강건강인식의 차이는 t-test 또는 ANOVA test를 시행하였다. 구강건강행동과 구강건강인식의 관련성, 관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의치관리 유·무의 차이는 χ^2 를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1. 일반적인 특징

요양기관 종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여성’ 184명, ‘41세 이상’ 171명, ‘기혼’ 174명, ‘전문대졸 이상’ 107명, ‘요양보호사’ 119명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근무시간은 ‘40시간 이하’ 126명, 근무경력은 ‘5년 이하’ 116명, 하루 동안 돌보는 환자 수는 ‘10명 이상’이 97명으로 가장 많았다.

2. 교육수준과 구강건강행동에 따른 구강건강인식의 차이

요양기관 종사자의 교육수준과 구강건강행동에 따른 구강건강인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2>. 교육수준은 고졸이하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에서 구강건강지식, 구강질환과 전신질환 관련성의 세부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강건강지식은 평균 3.59, 구강질환과 전신질환과의 관련성 인식은 평균 3.95로 전문대졸 이상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2년 동안 정기적인 치과방문횟수는 구강 건강 지식,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의 관련성의 세부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강건강지식은 평균 3.66, 구강질환과 전신질환과의 관련성 인식은 평균 3.97로 3회 이상 방문한 집단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16	8.0
	Female	184	92.0
Age(yrs)	≤40	29	14.5
	>40	171	85.5
Married state	Single	26	13.0
	Married	174	87.0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93	46.5
	≥ College	107	53.5
Occupation	Nurse	48	24.0
	Assistant nursing	17	8.5
	Geriatric care helper	119	59.5
	Social worker	16	8.0
Work time(a week)	≤40	126	63.0
	≥41	74	37.0
Career(year)	≤5	116	58.0
	≥6	84	42.0
Number of care patient(day)	≤5	55	27.5
	6~9	48	24.0
	≥10	97	48.5

Table 2. Oral health awareness according to education level

Classification		Importance of oral health	Oral health knowledge	Oral disease and systemic disease association	Social impact
		Mean±SD	Mean±SD	Mean±SD	Mean±SD
Education level	≤High school	4.56±0.71	3.39±0.66	3.56±1.08	3.95±0.96
	≥Collage	4.65±0.51	3.59±0.71	3.95±0.73	3.99±0.74
	t	-0.945	-2.050*	-2.880**	-0.273
Number of visit in dental clinic	0	4.73±0.45	3.57±0.70	3.92±0.97	4.19±0.74
	1~2	4.58±0.66	3.37±0.64	3.60±0.94	3.96±0.75
	≥3	4.61±0.59	3.66±0.73	3.97±0.86	3.91±1.01
	F	0.603	3.759*	3.790*	1.030
Number of tooth brushing	≤2	4.50±0.67	3.27±0.63	3.36±0.95	3.81±0.90
	3	4.64±0.54	3.46±0.63	3.73±0.91	4.03±0.78
	≥4	4.58±0.75	3.70±0.80	4.05±0.90	3.90±0.98
	F	0.588	3.675*	4.819**	0.835

*p<0.05, **p<0.01 by the Independent t-test at α=0.05

By the Independent t-test or one-way ANOVA test at α=0.05

^{a,b}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Scheffe test at α=0.05(a<b)

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하루 칫솔질 횟수는 구강건강지식,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의 관련성의 세부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강건강지식은 평균 3.70,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의 관련성 인식은 평균 4.05로 4회 이상의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3. 구강건강행동과 구강건강인식의 연관성

요양기관 종사자의 구강건강행동과 구강건강인식의 연관성은 다음과 같다<Table 3>. 2년 동안 치과방문횟수와 하루 칫솔질 횟수는 구강건강인식과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년 동안 치과에 방문한 적이 없는 요양기관 종사자는 치아우식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응답하였으며, 1회 이상 방문자는 치주질환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응답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하루 잇솔질은 3번

하는 종사자들이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구취의 구강건강 문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4. 구강관리 실태와 요구도

요양보호 대상자에 대한 필요 구강보건지식 내용과 필요 구강전문인력, 구강위생 처치시행 정도, 구강건강관리 문제점과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Table 4>. 필요한 구강건강

Table 3. Oral health awareness according to oral health behaviors

Classification	Important factor of oral health(%)				Oral health problems(%)					
	Regular dental check	Regular tooth brushing	Congenital oral health	χ^2	Dental caries	Periodontal disease	Bad breath	Etc	χ^2	
Number of visit of dental clinic	0	10 (5.0)	14 (7.0)	2 (1.0)	0.767	12 (6.0)	8 (4.0)	6 (3.0)	0 (0)	13.357*
	1~2	35 (17.5)	62 (31.0)	6 (3.0)		25 (12.5)	64 (32.0)	12 (6.0)	2 (1.0)	
	≥3	22 (11.0)	45 (22.5)	4 (2.0)		15 (7.5)	40 (20.0)	12 (6.0)	4 (2.0)	
Number of tooth brushing	≤2	5 (2.5)	16 (8.0)	1 (0.5)	2.578	6 (3.0)	14 (7.0)	2 (1.0)	0 (0)	3.494
	3	47 (23.5)	72 (36.0)	8 (4.0)		30 (15.0)	74 (37.0)	19 (9.5)	4 (2.0)	
	≥4	15 (7.5)	3 (1.5)	3 (1.5)		16 (8.0)	24 (12.0)	9 (4.5)	2 (1.0)	

*p<0.05 by chi-square test

Table 4. According to the elderly patient needed that oral health knowledge, expert, oral care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oral health care

Variables	N	%	
Needed oral health knowledge	Tooth brushing	90	45
	Oral care products	5	2.5
	Bad breath management	14	7
	Denture cleaning methods	21	10.5
	Oral care education	65	32.5
	Etc	5	2.5
Expert	Dentist	56	28
	Dental hygienist	124	62
	Etc	20	10
Oral care performance	Performed regularly	124	62.0
	Irregularly performed	42	21.0
	Don't know method	1	0.5
	Patients don't want	24	12.0
	Etc	9	4.5
Problem care for oral health	Excessive work	40	20
	Understaffed	58	29
	Lack of supplies	17	8.5
	Lack of knowledge	57	28.5
	Low salaries	22	11
	Etc	2	1
Improvements during oral health care	Knowledge provided	60	30
	Expert placement	67	33.5
	Facility improvements	17	8.5
	Provide regular management time	50	25
	Etc	5	2.5

Table 5. The characteristics of long term care elderly and denture management

Classification		Denture care		χ^2
		Yes(%)	No(%)	
Sex	Male	14(7.0)	1(0.5%)	1.572
	Female	129(64.5)	32(16.0%)	
Age	≤40	14(7.0)	10(5.0%)	9.580**
	≥41	129(64.5)	23(11.5%)	
Education	≤High school	76(38.0)	8(4.0%)	8.979**
	≥Collage	67(33.5)	25(12.5%)	
Occupation	Nurse	24(12.0)	18(9.0%)	31.338***
	Assistant nursing geriatric care helper	8(4.0)	6(3.0%)	
	Social worker	100(50.0)	8(4.0%)	
Career	≤5	11(5.5)	1(0.5%)	0.021
	≥6	80(40.0)	18(9.0%)	
Number of care	≤5	63(31.5)	15(7.5%)	10.768**
	6~9	36(18.0)	5(2.5%)	
	≥10	43(21.5)	3(1.5%)	
	≥10	64(32.0)	25(12.5%)	

*p<0.05, **p<0.01, ***p<0.001 by chi-square test

지식 내용은 올바른 칫솔질은 90명, 구강 관리 교육, 65명, 의치세척 및 관리 방법 21명, 입 냄새 관리 14명, 구강위생용품 선택 및 기타는 각 5명 순으로 나타났다. 필요 구강 전문인력으로는 치과위생사 124명, 치과의사 56명, 기타 20명 순으로 나타나 올바른 잇솔질 지식과 치과위생사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요양보호대상자에 대한 구강위생처치시행 정도는 규칙적으로 시행 하는 경우는 124명, 업무가 바빠 불규칙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42명, 구강위생처치시행 방법을 모르는 경우 1명, 대상자가 원하지 않아 시행하지 않은 경우가 24명, 기타 9명으로 응답하였다. 구강건강관리의 문제점은 구강건강관리인원 부족 58명, 구강건강관리 지식 부족 57명, 구강관리용품 부족 17명, 과도한 업무 40명, 낮은 급여 22명, 기타 6명 순으로 나타났다.

구강건강관리 개선점으로는 전문 관리 요원의 배치 67명, 전문적인 지식제공 60명, 정기적인 관리시간 제공 50명, 시설 개선 17명, 기타 6명 순으로 나타났다.

5. 요양기관 종사자의 특성과 의치관리 유·무의 차이

요양기관 종사자의 특성에 따른 의치관리 유·무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5>. 의치관리를 하는 요양기관종사자는 14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41세 이상, 고졸이하, 요양보호사, 하루 돌보는 환자 10명 이상의 집단의 의치관리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총괄 및 고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요양보호사 표준교재(2014)⁷⁾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기요양 보험서비스 내에서 제공하는 요양보호서비스 중 구강관리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의 한 부분에 속한다.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는 구강청결, 입안 닦아내기, 입안 행구기, 칫솔질하기, 의치 손질,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를 원칙으로 한다. 요양기관 종사자는 누구보다 요양노인과 접촉이 많고, 이들의 신체활동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대상자들의 구강건강관리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구강건강행동, 구강건강인식도와 구강건강관리실태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요양기관 종사자는 요양보호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직접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 중⁸⁾, 요양보호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기존의 연구⁹⁾ 양상과 비슷하였다. 특히 요양보호사는 다른 종사자수보다 2배 이상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가 노인과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요양기관 종사자들은 전문대졸 이상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1세 이상, 여성 근무자가 가장 많았다. 1일 평균 요양 보호대상자 인원은 10명 이상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노인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대상자 적정 인원에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 종사자의 후후 대상자 인원 관리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구강건강인식은 고졸이하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에서 구강건강지식, 구강질환과 전신질환 관련성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강건강은 전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삶의 질에 결정인자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으며 전신건강을 위해서도 구강건강관리는 중요하다⁴⁾.

선행연구에 의하면 요양기관의 종사자는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지침이 없어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이나 이전 경험에 근거해서 수행하고 있었다^{10, 11}). 요양병원에 일하는 직원들은 구강위생, 직원의 인지도 등은 낮으며 정기적인 진료나 관리가 소홀한 것을 볼 수 있으며⁶),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나 지식이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전문적인 지식에 기초한 명확한 지침, 방법론도 없이 시행되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올바른 칫솔질 교육과 구강건강관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필요구강전문인력으로는 치과위생사가 높게 나타났고, 구강관리를 시행하는데 인력부족, 부족한 구강보건지식, 과도한 업무가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근무종사자들은 전문 관리 요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와도 일치한 결과를 나타냈고⁹), 구강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힘든 일로 여겨져 순위가 밀려나고 있었다¹¹). 김 등¹²)과 황과 박¹³)의 연구에서도 요양보호대상자에 대한 구강건강관리는 규칙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구강건강관리 인력과 구강건강관리 지식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

박 등¹¹)의 연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가 규칙적으로 구강관리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문서화된 구강위생 지침은 없고 입소자를 위한 정기적인 구강검진도 없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하루에 10명 이상의 환자를 보는 업무 배정 상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지만 지식의 부족과 전문 인력의 부족을 느끼고 있었다. 요양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 및 칫솔질 교육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적정 치과 전문인력이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 등⁴)의 연구에 의하면, 구강을 건강하게 가꾸는데 규칙적인 칫솔질이 가장 중요한 기여요인이고, 정기적인 구강검진, 선천적인 구강건강 순으로 주요 기여요인이라고 하였다⁵). 본 연구에서도 구강건강을 유지하는데 칫솔질이 가장 중요한 구강 청결방법으로 선택되어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칫솔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모 등⁶)의 연구에 의하면, 구강질환의 원인, 관리, 예방에 대한 교육경험은 단지 50.5%만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3.8%가 교육 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장기요양시설 인력에 구강건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 후 구강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구강위생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하였으며^{7, 18}), 노인요양병원입원환자에게 3개월 동안 간병인을 통한 구강건강관리를 시행한 결과 구강위생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⁹).

구강관리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에 해당되는데 구강표준서비스 시간은 5분 정도 제공 되고있다⁸). 전신건강과 밀접

한 관계가 있는 구강건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구강위생에 관한 교육시간이 너무 적게 배정되어 있으며 교육내용도 미흡할 뿐 아니라 전문인력에 의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노인이 구강건강에 관한 전문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 배치가 필요하며²⁰), 구강건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습득과 올바른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성질환과 구강건강과의 연관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구강건강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요양기관 종사자들은 구강건강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하루 돌봄 환자의 인원이 많음으로 인해, 실제적 관리는 힘든 상황으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의 구강건강전문 관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대상이 서울, 경기 지역의 일부 노인요양기관 시설 종사자로서 노인들의 구강건강관리 실태를 조사 연구한 결과로서, 전체 시설 종사자들에게 일반화 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노인구강건강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향후 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그러나 노인요양기관의 구강건강 실태 조사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관리 인력에 대한 연구로서는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 된다.

결론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일부 지역의 요양기관근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노인요양기관 종사자의 구강건강행태, 구강건강인식도 및 구강건강 관리 실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요양기관 종사자의 교육수준과 구강건강행동에 따른 구강건강인식의 조사결과, 전문대졸 이상, 치과방문횟수 3회 이상, 칫솔질 횟수 4회 이상의 집단에서 구강건강 지식,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의 관련성에서 구강건강인식이 높게 나타났다($p < 0.05$).
2. 요양보호 대상자에 대한 구강관리 실태와 요구도 결과, 필요한 구강건강지식 내용으로는 올바른 칫솔질, 필요 구강 전문인력으로는 치과위생사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강위생처치시행 정도는 규칙적으로 시행 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구강건강관리의 문제점은 구강건강관리인원 부족, 구강건강관리 개선점으로는 전문 관리 요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3. 요양기관 종사자의 특성에 따른 의치관리 유·무의 차이 결과, 41세 이상, 고졸이하, 요양보호사, 하루 돌보는 환자 10명 이상의 집단의 의치관리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강건강 관리 인식과 실태 조사를 시행한 결과, 요양기관 종사자들은 구강건강에 관한 필요성과 인식은 있었으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입소자를 위한 체계적인 구강건강 관리의 지침, 전문 관리인력 배치, 구강건강관리 교육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KOSIS), Statistics DB, Population Projections[Internet]. [cited 2011 Dec 1]. Available from: <http://kostatat.go.kr/wsearch/search.jsp>.
2.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GHO), World health statistic 2012[Internet]. World health organization[cited 2012 June 13]. Available from: <http://www.who.int/gho/publications>
3.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News and information, Statistics, Statistics data, The list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Internet]. [cited 2014 Sep 30]. Available from: <http://www.hira.or.kr>.
4. Kwon SH, Park JR, Lee YK. A study on the elder care facility workers' attitude towards senior citizens and on the perception towards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senior citizens. *J Korean Soc Dent Hyg* 2010; 10(5): 905-15.
5. Park SY, Cho NI, Jeong JH, Lee SH, Oh HW, Lee HS. Oral health care provided by nursing home employees to elderly residents.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3; 37(4): 200-7. <http://dx.doi.org/10.11149/jkaoh.2013.37.4.200>.
6. Shin RH, Bae EK, Choi SH, Park II, Ohyama T, Chung MK. Analysis of current nursing homes in Korea and to assess the role and prospect of dentists in comparison to Japanese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J Korean Acad Prosthodont* 2008; 46(1): 83-91.
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list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2nd ed..Seoul: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4: 297-302.
8. Moon YM. Oral health behavior factors related to caregivers of elderly care facility [Master's thesis]. Seosan: Univ. of Han-Seo, 2012.
9. Cho NI, Park SY, Lee HS, Oh HW.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among nursing home employees in Seoul, Korea.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3 Mar; 37(1): 16-24. <http://dx.doi.org/10.11149/jkaoh.2013.37.1.16>.
10. Park SS, Park SH. A Study on recognition of dental health care in care giver. *J Society Occup Thera Age Demea* 2010; 4(1): 1-9.
11. Park MS. Educational needs in the provision of oral care by nursing staff in long-term care facility for elderly people. *J Korean Gerontol Nurs* 2010; 12(1): 72-80.
12. Kim CW, Hwang JM, Park YD.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awareness of dental service suppliers in the capital area o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senior citizens. *J Korean Acad Dent Health* 2010; 34(1): 58-64.
13. Hwang JM, Park YD. Dental hygienists' awareness and needs regarding the current long-term senior care insurance system. *J Korean Acad Dent Health* 2009; 33(3): 422-31.
14. Woon JH. Oral health perception, knowledge, and behavior among visiting health care providers[Master's thesis]. Seoul: Univ. of Hanyang, 2008.
15. Jung JG. Survey on the recognition and demand on oral health education of workers in K university hospital Taejeon city[Master's thesis]. Daejeon: Univ. of Konyang, 2007.
16. Mo HS, Choi KB, Kim JS. Knowledge of oral health and its predictors in nursing staff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J Korean Acad Fundam Nurs* 2008; 15(4): 428-37.
17. Nicol R, Petrina SM, Mchugh S, Bagg J. Effectiveness of health care worker training on the oral health of elderly residents of nursing homes.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2005; 33(2): 115-24. <http://dx.doi.org/10.1111/j.1600-0528.2004.00212.x>.
18. Isaksson R, Paulsson G, Fridlund B, Nederfors T. Evaluation of an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personnel in special housing facilities for the elderly. Part II: Clinical aspects. *Spec Care Dentist* 2000; 20(3):109-13. <http://dx.doi.org/10.1111/j.1754-4505.2000.tb00012.x>.
19. Kim KW, Yoon HJ, Kim MR, Lee HK, Lee KS. Effects of oral hygiene improvement of the elderly patients by caregiver's in rural long-term care hospital. *J Agri Med Community Health* 2010; 35(1): 13-20. <http://dx.doi.org/10.5393/JAMCH.2010.35.1.013>.
20. Kim SH, Kim CH, Son GY, Yang SY, Cho MS, Oh SH. The perception of elderly oral health care in the care workers in nursing homes. *J Korean Soc Dent Hyg* 2014; 14(5): 715-21. <http://dx.doi.org/10.13065/jksdh.2014.14.05.715>.

